



새는

#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

김숙현 희곡집

釜山日報社  
기획출판국

## 준재의 빛을 찾아서

84년 제2회국립(바이올렛 왈츠)을 낸 후 무려 15년만에 제3 회국립(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를 내게 되었다. 그 동안 화위를 따고 대학의 강사생활을 거쳐 언론계에 몸담아 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소설이나 시 같은 대중에게 친숙한 장르가 아닌 회곡을 쓰다보니 유년스레 소외감과 좌절을 겪었다. 필경에 가서는 문학인 누구나 그릴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발전(自家發電)일 수밖에 없었던 회곡작가의 길은 갈등과 오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미려하나마 언론활동에서 출구를 얻다보니 회곡 집필직업은 많이 태만하고 등한했다.

요즘 들어 어떤 사건이나 일상의 풍경들이 소재로 다가왔다기도 바리에 각인되지 않고 곧 퇴색되고 마는 현상은 문제의식의 헤이일까, 감각둔화 현상일까.

예술이아랄모 파괴적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으로, 사교생활을 접고 친거해(읽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로 대미(大尾)를 장식했던 마르셀 프루스트의 창작열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11편의 회곡들은 바쁜 시간의 찜을 내 어렵게 쓴 작품이라 한편 한편 애적이 간다. <젊은 왕자의 무덤>은 88년 '제33회 현대문학상'을 안겨준 작품이고 <접점발미>는 수상 기념작품으로 쓴 것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장막(읽어붙은 입)은 요절한 재일교포 작가 김학영(金鶴泳)씨의 동명 소설에다 민족적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한 그의 불우한 생애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어서 내 회곡으로는 조금 이채롭다.

<숲이 보이는 창>은 91년 여름 한달동안 서구(西歐) 연극의 시원지인 그리스와 셰익스피어 연극의 본고장인 영국 등 유럽 일대를 여행한 뒤 쓴

소품이다. 회곡 형식으로 쓴 일종의 여행기인 셈이다.

<나팔소리는 계속되고>와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는 정치인을 가장으로 둔 가정, 그 권세의 허상 아래 희생되는 두 여인을 모티브로 한 연작 형식이다. <나팔소리...>는 정치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딸이 직접적 희생물이라면 <새는 동굴에서...>는 헌신적인 내조와 자이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내가 희생자다. 기회가 되면 정치인과 아내, 그의 자녀 등 삼각구도를 변주로 한 또 한 편의 완결작품을 쓰고 싶다.

<환하여, 환하여>는 원효대사의 득도(得道)와 파계, 그 양자를 뛰어넘는 해탈과정을 극화한 작품이다. 앞으로 고승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구도열을 소재로 명편을 남기고 싶은 것이 작가로서의 마지막 소망이다. 비인간화예의 거부, 우리를 반추주었던 젊음이나 권세, 돈 등이 멀어진 후에도 인간답게 의연히 버틸 수 있는 인간존재 의미를 추적하는 일 등은 내 영원한 문화적 화두다.

발간비 지원으로 회곡작가로서 마냥 게을러진 나를 부추겨 준 문예진흥원과 책이 나오기까지 불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산일보사 김상훈 사정님을 위시한 사우(社友)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1999년 5월 金井山 가슴에서

金 淑 賢



# 꽃피는 계절

## 책 읽기

꽃피는 계절	9
먼 빛, 그 소리	41
나팔 소리는 계속되고	81
새는 동굴에서 울지 않는다	131
환하여, 환하여	159
맞은 사람 선 사람	217
젊은 양자의 무덤	245
침침달미	267
어느 화려한 날의 소풍	297
켄슬을 위한 변주	331
얼어붙은 입	351

